

기술경영을 위한 새로운 제안



박성열 (주)우린정보/대표이사

“ 기술-제품-솔루션-프로젝트 ” 로 전개되는 “TR (Technology Relay) Map 기반 기술경영 ” 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즉 상기 항목에 따라 분류, 정리하면, 2차원 4열의 항목별로 연계된 도표를 작성할 수 있다. 선두 기업들은 기술이 기업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아래 첨단 핵심기술 개발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시장진출을 추진하여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선점, 지속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기술혁신 주기의 급격한 단축에 기인한 지식사회의 고도화는 기술의 고부가가치를 더욱 실감나게 하고 있다.

산업기술측면에서 Freeman의 기술 정의는 “산업에서 사용되는 물리적, 사회적 현상의 원리에 관한 지식, 그 원리를 생산에 응용하는 것에 관한 지식”이며 Dahlman과 Westphal은 “기술은 입력요소(Input)를 출력결과물

약력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현재 (주)우린정보 대표이사

(Output)로 변형시키는 물리적 과정” 이라고 하여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대체로 “산업지식 및 기법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겠다.

이제 기업성장의 원천인 기술을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지적 재화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살펴보자.

첫번째, 기술->제품 변환으로, 자사가 보유 혹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실체는 지식경영에서 말하는 암묵적 지식으로 무형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 지적재산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독특한 브랜드를 가지는 제품, 소위 형식지로 변환되어 보다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경우, 소정의 기능을 발휘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 등록되어 제품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녹아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기술기반 기업은 자사가 가지고 있는 중분류, 소분류의 핵심기술은 무엇이며 자사 제품은 어떤 기술로 구성, 개발한 것인지 기술-제품 결합 구성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

두번째, 기술-제품->솔루션 변환으로, 자사가 개발한 제품을 주축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합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통된 솔루션을 정리할 수 있어 소위 솔루션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세번째, 기술-제품-솔루션이 프로젝트로 변환한다. 솔루션이 특정 조직의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커스텀마이징, 개발될 경우 기술은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수행되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의 발전 목표와 일치하는 전략적 기술, 제품, 솔루션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 육성하는 전략과 핵심 인력의 배치를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제 TR Map을 기술경영에 활용해 보자. 조직의 연구개발 부서는 첨단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기술로 추가하거나 기술 수준을 강화하여 제품에서 실천적으로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연구원 각자는 자신이 담당한 전문기술의 동향분석서나 제품의 설명서 등 기술문서를 작성한다. 영업부서는 자사 제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정리하여 고객을 향한 영업 자료로 활용하고, 개발부서는 솔루션 제공차원에서 고객으로 부터 수주한 특정기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수반되는 기술문서를 작성한다. 프로젝트 수행의 Know-What인 Technical Documents는 고객에게 제출하고, Know-How인 Technical Memo는 자사에 축적하여 차기 프로젝트 수행에 재 사용토록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술문서가 된다. 따라서 TR Map 기반 기술경영은 기업이 갖고 있는 지적재산과 부서, 개인별 역할 그리고 작성해야 할 기술문서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 기술의 고부가가치를 시장에서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